

2011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전망

I. 머리말	1
II.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	2
III. 주요 특징	6
IV. 다국적기업의 국제 생산	11
V. 다국적기업의 현금 보유 현황	13
VI.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15
VII. 향후 전망	17
VIII. 시사점	21
※ 참고자료	24

작성 : 책임조사역 김유신 (3779-6667)
echis@koreaexim.go.kr

확인 : 해외투자분석팀장 모창희 (3779-6664)
chmoh@koreaexim.go.kr

< 요약 >

I.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

1. 개황

-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16% 증가한 1조 5,245억 달러 기록
 - 다국적기업들의 이익증가와 개도국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 등이 투자 수요를 촉진
 - 금융위기 이전인 2005~2007년 평균치 1조 4,874억 달러를 상회하였으나, 2007년의 최고치 1조 9,105억 달러보다 23% 낮은 상황
 -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은 지속적인 그린필드 투자를 통해 12% 증가, 선진국은 다국적기업의 국경간 M&A로 21% 증가
 - 해외직접투자 잔액은 3% 증가하여 20조 4천억 달러를 기록

2. 유입 동향

- (선진국) 전년대비 21% 증가한 7,479억 달러 기록
 - 유럽으로의 투자유입액이 다국적기업에 의한 대규모 국경간 M&A에 힘입어 19% 증가한 4,253억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 주도
- (개도국) 전년대비 11% 증가한 6,844억 달러 기록
 - 2011년 개발도상국에 대한 연간 투자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아시아 투자가 10% 증가한 4,232억 달러, 중남미는 전년대비 8% 증가한 1,499억불 기록
- (체제전환국) 전년대비 12% 증가한 922억 달러 기록
 - 비용 절감 효과, EU 시장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 풍부한 천연 자원, 내수 시장의 성장 등을 원동력으로 투자 유입 증가

3. 유출 동향

□ (선진국) 전년대비 25% 증가한 1조 2,375억 달러 기록

- 국경간 M&A 투자는 주로 다른 선진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린필드 투자는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으로의 투자 비중 증가
 -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3,970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최대 투자국 지위 유지
 - 전년도 8위였던 일본은 엔고 현상 지속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103% 증가한 1,144억불을 투자하여 2위 투자국으로 재부상
 - EU는 국경간 M&A를 중심으로 5,618억불을 투자하여 전년대비 16% 증가하였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171%, 17% 증가하였으나 독일은 50% 감소

□ (개발도상국) 전년대비 4% 감소한 3,838억 달러 기록

- 중남미와 중국 등의 투자 감소로 2011년 소폭 감소
 - 특히 동아시아 개도국의 투자액은 전년대비 9% 감소한 1,800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홍콩은 14% 감소한 816억 달러, 중국은 5% 감소한 651억 달러, 한국은 13% 감소한 204억 달러 기록

□ (체제전환국) 전년대비 19% 증가한 730억 달러 기록

- 러시아 등 천연자원에 기반한 체제전환국의 다국적기업들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신흥시장에 대한 확장을 지속

□ 남남투자의 지속 증가

-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 다국적기업들은 신흥국 투자를 확대
 - BRICs 국가들의 신흥국 투자 비중이 금융위기 이전 59%에서 2011년에는 65%로 증가

II. 주요 특징

1. 산업별

□ (1차 산업) 전년 대비 43% 증가한 2,000억 달러 기록

- 글로벌 에너지 소비 증가로 주로 선진국과 체제 전환국에 대한 원유 및 천연가스, 광물 산업 투자 증가

□ (제조업) 전년 대비 7% 증가한 6,600억 달러 기록

- 식품업, 화학 산업이 제조업 투자 증가를 주도하였으나, 경기 민감도가 높은 자동차 산업은 15% 감소

□ (서비스업) 전년 대비 15% 증가한 5,700억 달러 기록

- 서비스업 투자 중 85%가 운송·통신, 가스·전기·수도 등의 비금융 부문이며, 금융업 해외직접투자는 13% 증가한 800억 달러 기록

2. 진입방식별(M&A와 그린필드)

□ (국경간 M&A) 전년대비 53% 증가한 5,260억 달러 기록

- 주식 시장에서의 자산가치 상승, 투자자의 재정여력 향상 등에 기인하여 선진국과 체제전환국의 대형거래 증가

□ (그린필드) 9,040억 달러로 전년 수준 유지

- 1/4분기에 투자가 크게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2/4분기 이후 유럽위기와 세계 경제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하락세로 전환

3. 특별기금

□ 사모펀드는 재정난으로 인해 해외직접투자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국부펀드는 자산 증가를 통해 해외직접투자의 원천으로서의 역할 강화

Ⅲ. 다국적기업의 국제 생산

□ 다국적기업 해외 현지법인의 주요 경영지표 강세 시현

- 해외 법인의 2011년 고용 인원은 전년대비 8% 증가한 6,900만명으로 전 세계 고용 증가율 2%에 비해 빠르게 증가
- 2011년 매출은 전년대비 9% 상승한 28조 달러, 부가가치는 7조 달러 (세계 GDP의 10% 수준) 기록

□ 다국적기업의 매출 및 고용은 해외 비중이 증가

- 2011년 국내 매출은 전년대비 13% 증가했으나, 해외 매출은 20% 증가하였으며, 국내 고용은 3% 감소하였으나, 해외 고용은 4% 증가
 - 금융위기 이후 신흥시장 성장과 선진국 경제의 회복 부진 반영

Ⅳ. 다국적기업의 현금 보유 현황

□ 다국적기업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현금 확보를 확대

- '10년 현금성 자산(현금 및 단기투자자산)은 1.03조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08년과 비교하면 30% 이상 증가
 -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1,660억불의 초과 현금 보유 추정
- 기업 구조조정은 기대했던 비용감소 효과가 크지 않았고, 배당 축소는 주가 하락 우려로 인해 실행이 어려워 투자예산을 대폭 축소
 -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 감소는 빠른 경제 회복을 저해

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 우리나라의 2011년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은 전년도 233억 달러 대비 13% 감소한 204억달러 기록

-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금액은 전년대비 16% 증가하여 전 세계 해외직

접투자 유출액 중 우리나라의 비중은 1.6%에서 1.2%로 감소, 투자 국가 순위는 16위에서 2011년 20위로 하락

- 금융위기 이전(2005~2007년)과 비교할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63.9% 증가하여 전 세계 12.9%에 비해 견조한 상승세 유지

□ 업종별로 1차 산업 30%, 제조업 31%, 서비스업 39% 투자

- 전 세계는 1차 산업 14%, 제조업 46%, 서비스업 40%로 1차 산업 비중이 높는데, 이는 주로 자원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확대에 기인
- 전 세계 대비 식음료 제조업, 화학 제조업, 정제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와 운수업 등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기전자와 자동차·운송장비, 금융업 등 투자 비중은 높은 편

□ 지역별로 선진국 41%, 개도국 58%, 체제전환국 1% 투자

- 전 세계 비중은 선진국 49%, 개발도상국 45%, 체제전환국 6% 순으로 선진국과 체제전환국 비중이 더 낮고 개도국 비중은 높음.
- 주요 투자국은 미국, 중국, 호주, 홍콩, 캐나다 순으로 상위 투자 5개국의 투자 비중이 53%에 달해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편

□ M&A 투자액은 41억 달러 규모로 해외투자금액의 약 20% 차지

-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 중 M&A 비중 31%에 비해 낮은 편
- 미국 1,302억 달러, 영국 539억 달러, 일본 627억 달러 등 주요 국가 대비 규모 면에서 크게 열세

VI. 향후 전망

□ 해외직접투자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

- 연간 해외투자는 2012년 1.6조 달러, 2013년 1.8조 달러, 2014년에는 1.9조 달러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다국적기업들은 국내 모기업으로부터의 수출보다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현지 생산과 판매 방식을 보다 선호

- 선진국 경제의 침체 지속, 원유 가격의 상승, 유로존 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위협 등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

□ 투자 대상으로서 개발도상국, 특히 아시아 중요도 상승

- 다국적기업의 국제 생산성 증대를 위해 신흥국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중기적으로 이들 국가로의 해외투자 유입액의 증가전망.

VII. 시사점

□ 해외직접투자 확대는 선진국형 경제 단계 진입 현상

- 우리나라는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투자를 초과하는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이는 선진국 경제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

□ 해외직접투자는 향후로도 지속 확대 불가피

- 해외직접투자는 산업 공동화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지 시장 진출, 원천 기술의 확보, 에너지 자원의 확보 등 긍정적 요인이 존재

□ 신흥 시장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성장성과 수익성이 양호한 개도국 지역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및 투자환경 정보 제공 등 비금융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필요

□ 해외 M&A 활성화

-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저평가 기업 매물이 많을 수 있으므로 M&A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과감한 리스크 테이킹 전략 구사

□ 지역 클러스터 중심의 동반 성장 체제 구축

- 현지법인 신용 대출, 해외 동반 진출 기업 지원 강화,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효율성을 제고

- 본 보고서는 세계투자리포트 2011(World Investment Report 2011)과 부속 통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 세계투자리포트는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가 매년 발간
 - 각국의 통계기관(주로 중앙은행이 담당)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매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통계 및 보고서를 발표
 - UNCTAD는 해외직접투자금액을 유출액(outflow)과 유입액(inflow)¹⁾으로 구분하여 작성
 - 국가별 통계 작성 기준의 차이, 거래의 다양화와 단기 투기자금의 비중 증가에 따른 측정 어려움, 환율의 변동성 확대 등의 원인으로 유출액과 유입액의 차이가 발생
- 동 보고서에 인용된 우리나라 해외투자통계 유출액은 수출입은행의 통계와 차이가 있음.
 - UNCTAD의 우리나라 통계는 한국은행의 국제수지표 상 해외직접투자수지 금액이며, 수출입은행은 외국환관리 목적의 외국환거래법령에 의거하여 집계하여 다소 차이가 있음.

수은 해외직접투자 통계와의 차이

(억 달러)

	‘07	‘08	‘09	‘10	‘11
수은	222	238	203	242	256
UNCTAD	197	203	172	233	204

1)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유출을 해외직접투자자로, 유입을 외국인투자자로 정의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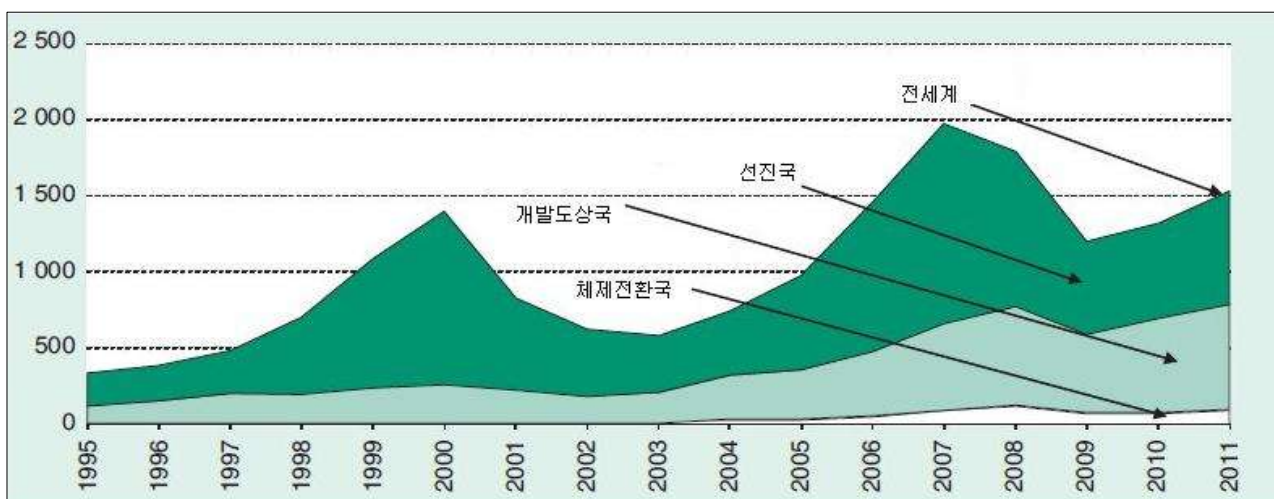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

1. 개황

-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16% 증가한 1조 5,245억 달러 기록
 - 다국적기업들의 이익증가와 개도국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 등이 투자 수요를 촉진
 - 금융위기 이전인 2005~2007년 평균치 1조 4,874억 달러를 상회하였으나, 2007년의 최고치 1조 9,105억 달러보다 23% 낮은 상황
 -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은 지속적인 그린필드 투자를 통해 12% 증가, 선진국은 다국적기업의 국경간 M&A로 21% 증가
 - 투자 증가가 생산력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그린필드 투자보다는 국경간 M&A와 수익재투자²⁾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일부 우려 존재
 - 해외직접투자 잔액은 3% 증가하여 20조 4천억 달러를 기록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 추이

(십억 달러)



2) 수익재투자(reinvested earnings)란 해외직접투자 대상 기업의 이익을 배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사내 유보한 부분으로 국제투자통계기준은 이를 해외직접투자자로 간주

2. 유입동향

□ (선진국) 전년대비 21% 증가한 7,479억 달러 기록

- 유럽으로의 투자유입액이 다국적기업에 의한 대규모 국경간 M&A에 힘입어 19% 증가한 4,253억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 주도
- 금융위기 이후 산업/기업 구조조정과 공적 자금을 투입한 기업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분 매각 등으로 선진국 M&A 기회가 확대
- 해외 현지법인의 현금준비금 증가로 인한 수익재투자도 작용

□ (개도국) 전년대비 11% 증가한 6,844억 달러 기록

- 2011년 개발도상국에 대한 연간 투자액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
- 아시아 투자가 10% 증가한 4,232억 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주도 하였으며, 동아시아 2,190억 달러, 동남아시아 1,166억 달러, 남아시아 389억 달러로 각각 9%, 26%, 23% 증가하였으나, 서아시아는 487억 달러로 16% 감소
- 중남미(역외금융 센터³⁾ 제외)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소비 시장의 성장으로 전년대비 8% 증가한 1,499억불 유입
- 아프리카는 북아프리카에서의 투자 철수로 인해 전년대비 1% 감소한 42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3년 연속 감소세 시현

□ (체제전환국) 전년대비 12% 증가한 922억 달러 기록

- 비용 절감 효과, EU 시장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 풍부한 천연 자원, 내수 시장의 성장 등을 원동력으로 투자 유입 증가

3) 버진 아일랜드, 케이만군도 등 국가들로 금융 및 외환 등 거래에 대해 조세, 규제 등을 면제 또는 축소해 줌으로써 비거주자간 금융거래 중개 역할을 하는 국가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유입 동향

(억 달러)

지역	'05-'07 평균	'08	'09	'10	'11	전년대비
선진국	9,716	10,196	6,062	6,186	7,479	20.9%
유럽	6,821	5,690	3,989	3,566	4,253	19.3%
북미	2,528	3,635	1,650	2,213	2,679	21.0%
기타	367	871	423	407	547	34.5%
개도국	4,429	6,500	5,192	6,167	6,844	11.0%
아시아	2,862	3,804	3,152	3,841	4,232	10.2%
중남미	1,162	2,095	1,494	1,874	2,170	15.8%
아프리카	396	578	526	431	427	-1.1%
대양주	9	23	19	21	16	-22.8%
체제전환국	587	1,210	724	738	922	25.0%

3. 유출동향

□ (선진국) 전년대비 25% 증가한 1조 2,375억 달러 기록

- 국경간 M&A 투자는 주로 다른 선진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린필드 투자는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 비중 증가
 -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3,970억 달러를 기록하여 세계 최대 투자국 지위를 유지
 - 전년도 8위였던 일본은 엔고 현상 지속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103% 증가한 1,144억불을 투자하여 2위 투자국으로 재부상
 - EU는 국경간 M&A를 중심으로 5,618억불을 투자하여 전년대비 16% 증가하였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171%, 17% 증가하였으나 독일은 50% 감소

□ (개발도상국) 전년대비 4% 감소한 3,838억 달러 기록

- 중남미와 중국 등의 투자 감소로 2011년 소폭 감소

- 특히 동아시아 개도국의 투자액은 전년대비 9% 감소한 1,800억 달러 기록하였는데, 홍콩은 14% 감소한 816억 달러, 중국은 5% 감소한 651억 달러, 한국은 13% 감소한 204억 달러 기록

□ (체제전환국) 전년대비 19% 증가한 730억 달러 기록

- 러시아 등 천연자원에 기반한 체제전환국의 다국적기업들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신흥시장에 대한 확장을 지속

□ 남남투자의 지속 증가

-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 다국적기업들은 신흥국 투자를 확대
 - BRICs 국가들의 신흥국 투자 비중이 금융위기 이전 59%에서 2011년에는 65%로 증가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유출 동향

(억 달러)

지역	'05-'07 평균	'08	'09	'10	'11	전년대비
선진국	12,411	15,808	8,578	9,896	12,375	25.1%
유럽	9,192	10,246	4,581	5,684	6,514	14.6%
북미	2,549	3,881	3,086	3,430	4,462	30.1%
기타	670	1,681	911	782	1,399	78.9%
개도국	2,296	3,281	2,685	4,001	3,838	-4.1%
아시아	1,553	2,231	2,109	2,730	2,805	2.7%
중남미	677	970	543	1,199	997	-16.9%
아프리카	65	79	32	70	35	-50.0%
대양주	1	1	1	2	1	-37.4%
체제전환국	299	605	488	616	731	18.6%

Ⅲ

주요 특징

1. 산업별

□ (개요) 1차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모두 증가

- 제조업 해외직접투자는 2년 연속 증가, 1차 산업과 서비스업은 2009, 2010년에 급격히 감소한 후 2011년에 회복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규모 및 비중

(십억 달러, %)

연도	금액			비중		
	1차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1차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05-'07년 평균	130	670	820	8	41	50
'08	230	980	1,130	10	42	48
'09	170	510	630	13	39	48
'10	140	620	490	11	50	39
'11	200	660	570	14	46	40

□ (1차 산업) 전년 대비 43% 증가한 2,000억 달러 기록

- 글로벌 에너지 소비 증가로 주로 선진국과 체제 전환국에 대한 원유 및 천연가스, 광물 산업 투자 증가⁴⁾

□ (제조업) 전년 대비 7% 증가한 6,600억 달러 기록

- 식품업, 화학 산업이 제조업 투자 증가를 주도
 - 주로 기초 소비품을 생산하는 식·음료 제조업은 금융위기에 영향을 가장 덜 받은 산업 중 하나이며, 재무구조가 건실한 식음료 다국적 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M&A를 실시⁵⁾

4) 주요 투자사업: 중국 Sinopec의 Devon의 원유·가스 사업에 대한 투자 22억 달러, 프랑스 Total의 미국 Chesapeake Energy사 지분 취득 23억 달러, 스페인 Repsol의 Sand Hill Energy 개발 사업 지분 취득 10억 달러

5) 미국 SABMiller는 호주 Foster's Group를 108억 달러에 인수

- 화학 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제약업 주도로 65%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흥국 시장 성장, 신상품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 산업 구조조정과 더불어 제약회사들이 인기 의약품 특허 만료로 인해 개도국 복제 의약품 제조사 M&A를 확대⁶⁾한 것도 주요 원인

○ 자동차 산업은 15% 감소하며 경제 불확실성에 심한 영향을 받음.

- 특히 선진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금융위기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과잉 투자 문제 해소를 위해 감산, 가동 중지, 근무 시간 단축 등의 조치에 들어가며 투자 위축

□ (서비스업) 전년 대비 15% 증가한 5,700억 달러 기록

- 서비스업 중 85%가 운송·통신, 가스·전기·수도 등의 비금융 부문
- 금융 서비스업 해외직접투자는 13% 증가한 80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금융위기 이전 평균보다 50% 낮은 수준으로 여전히 침체된 양상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비중과 증가율

(%)

산업부문	비중	증가율	
		전년 대비	'05~'07년 평균 대비
총 합계	100	15	-12
1차 산업	14	46	50
광업, 채석업 및 석유산업	14	51	53
제조업	46	7	-1
식음료	6	18	40
정제	4	-37	-30
화학	10	65	25
전기·전자	5	-8	-26
자동차·운송장비	6	-15	10
서비스업	40	15	-31
전기·가스·수도	8	43	6
운송·창고·통신	8	38	-31
금융업	6	13	-52
비즈니스 서비스업	8	8	-33

6) 일본 Daiichi는 인도 Ranbaxy를 46억 달러에 인수

2. 진입방식별(M&A와 그린필드)

□ (국경간 M&A) 전년대비 53% 증가한 5,260억 달러 기록

- 주식 시장에서의 자산가치 상승, 투자자의 재정여력 향상 등에 기인하여 선진국과 체제전환국의 대형거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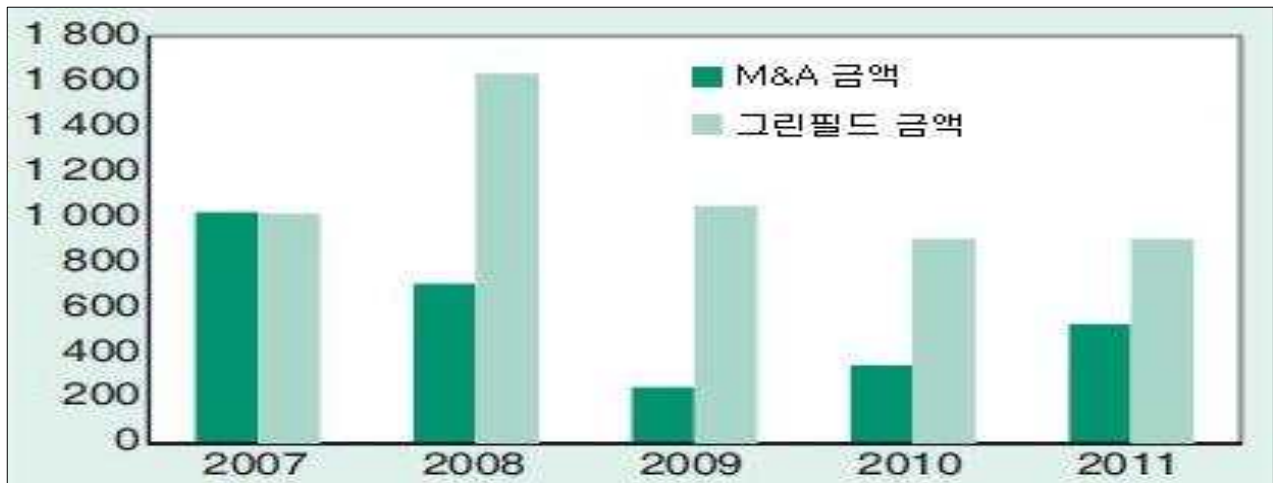
- 30억 달러 이상 대형 거래가 2010년 44건에서 2011년 62건으로 증가

□ (그린필드) 9,040억 달러로 전년 수준 유지

- 1/4분기에 투자가 크게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2/4분기 이후 유럽위기와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하락세로 전환

인수합병과 그린필드 투자 추이

(십억 달러)



3. 특별기금

□ 사모펀드와 국부펀드의 해외직접투자는 금융위기 이후 서로 다른 양상

- 사모펀드는 재정난으로 인해 해외직접투자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국부펀드는 자산 증가를 통해 해외직접투자의 원천으로서의 역할 강화

가.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⁷⁾

□ 전년 대비 18% 증가한 770억 달러 기록

-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2007년 최고치인 2,880억 달러에 비하면 73.3% 감소
 - 금융위기 이후 사모펀드의 주요 자금 공급원이었던 금융기관의 투자 축소로 자금 모집에 애로
-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과 체제 전환국으로, 서비스업에서 1차 산업과 제조업으로 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등 최근 투자 패턴이 변화

사모펀드의 국경간 M&A 추이

(억 달러)

	'07	'08	'09	'10	'11
투자액	2,880	2,044	580	650	770
거래건수	1,066	1,080	1,065	1,147	902

□ 장기 지속 가능성, 투명성, 기업 지배구조 등에 대한 우려 여전

- 사모펀드는 회사 신규 설립과 기업의 성장에 활용 가능
 - 일부 사모펀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전문 지식과 보다 나은 리스크 인식 능력을 활용하면서, 개발도상국 지역에 특화
- 그러나 사모펀드의 해외직접투자에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큼
 - 단기적 이익에 치중한 대량 해고, 구조조정 등을 야기하는데 반해 이들이 과거 지불한 높은 가격은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 어렵게 함.
 - 대부분의 사모펀드들이 기업공시 등 규제 수단을 갖춘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아 투명성, 지배구조와 관련한 우려 존재

7) 국경간 M&A 순가치로 측정

나. 국부 펀드(SWF; sovereign wealth funds)

□ 국부 펀드의 자금은 5조 달러에 달해 국제금융시장에 중요한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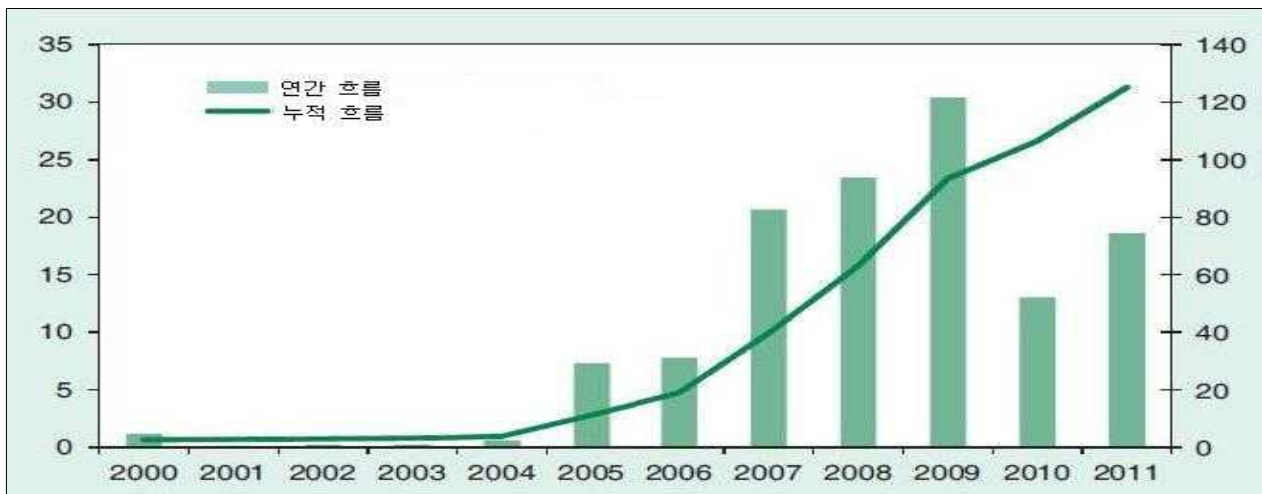
- 2007~2011년 국제 은행의 자산이 연 평균 4% 감소한 반면, 국부펀드의 자산은 매년 10% 상승

□ 2005년 이후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크게 증가

- 국부펀드 투자 자산은 대부분은 포트폴리오 투자로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아직 운영자산의 5%, 세계 해외직접투자 잔액의 1% 불과
 - 금융위기 동안 주로 북미와 유럽 기업 M&A를 통해 선진국 투자를 강화하였으나, 개도국 투자도 꾸준한 증가세 기록
 - 국부펀드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는 업종별로 금융, 부동산, 건설, 천연자원 등 일부 산업에 집중
- 장기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국부펀드의 농지, 천연자원, 인프라 등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는 대상 국가들의 정책적 우려를 야기할 수 있으나, 저개발 국가의 산업 개발과 고용 창출, 지속 가능한 성장 등에 기회 요인

국부펀드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추이

(십억 달러)



IV

다국적기업의 국제 생산

1. 현지법인 경영 현황

- 다국적기업의 해외 현지법인들은 2011년 국제적으로 모든 주요 지표(판매, 부가가치, 수출, 고용)에서 강세 시현
 - 비교적 긍정적인 경제 상황으로 인해 기존 현지법인에 의해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다국적기업들의 국제화 강화에 따라 새로운 해외직접투자가 유입되면서 경영실적 개선
- 해외법인의 2011년 고용 인원은 전년대비 8% 증가한 6,900만명
 - 전 세계 고용 증가율 2%에 비해 빠르게 증가
 -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에서의 고용 인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 2010년 전체 고용의 28%인 1,820만개의 일자리가 외국기업들이 투자한 현지법인에 의한 것
- 매출과 부가가치는 금융위기 이후 꾸준한 회복세
 - 2009년 침체 이후 2010년의 매출 반등 기조는 2011년까지 계속되어 전년대비 9% 상승한 28조 달러 기록
 - 부가가치는 7조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세계 GDP의 10% 수준
- 수익성은 회복세이나 장기적으로 구조적 하락세
 - 2011년의 해외직접투자 수익률은 2010년에 비해 0.9% 포인트 상승한 7.3%를 기록하여 2005년 7.6%에 근접
 - 그러나, 1980년대 초 10%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으로 이는 수익률이 높은 1차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서비스업으로 해외투자 대상의 산업 구성이 변화한 결과로 보임

국제생산 관련 주요 지표

(십억 달러, %, 천명)

		'90	'05~'07 평균	'09	'10	'11
해외 직접 투자	유출액	241	1,501	1,175	1,451	1,694
	잔액	2,093	15,812	19,326	20,865	21,168
	수익	122	1,100	1,049	1,278	1,470
	수익률	6.1	7.2	5.6	6.4	7.3
현지 법인	매출	5,102	20,656	23,866	25,622	27,877
	부가가치	1,018	4,949	6,392	6,560	7,183
	총자산	4,599	43,623	74,910	75,609	82,131
	수출액	1,498	5,003	5,060	6,267	7,358
	고용	21,458	51,593	59,877	63,903	69,065

2. 다국적기업의 경영 현황

가. 세계 100대 다국적기업⁸⁾

□ 매출 및 고용은 해외 비중이 증가

- 신흥시장에서의 매출과 고용의 확대가 성숙 단계인 선진국 시장에 비해 용이하다는 점과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 회복 부진이 반영
- 2011년 국내 매출은 전년대비 13% 증가했으나, 해외 매출은 20% 증가하였으며, 국내 고용은 3% 감소하였으나, 해외 고용은 4% 증가

□ 2011년 100대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3,740억 달러

- 100대 다국적기업의 국경간 M&A는 전 세계 M&A의 20%를 차지하는 1,94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국내외 M&A 중 국경간 M&A 비중이 '09년 50%에서 '11년 72%로 증가
- 반면, 그린필드 투자는 2011년 1,800억 달러로 소폭 하락

8) 100대 다국적기업은 주로 선진국 소재 기업들로 구성

나.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 100대 다국적기업

□ 매출 및 고용의 국내외 비중이 선진국 다국적기업과 상이

- 2010년 중 개도국과 체제전환국 100대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산은 전년 대비 23% 증가, 해외 자산은 7% 증가하였고, 국내 매출은 30% 증가, 해외 매출은 22% 증가하였으며, 국내 고용은 전년 대비 5% 증가, 해외 고용은 9% 증가

□ 2011년 해외직접투자는 1,190억 달러로 다소 둔화

- 2011년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의 상위 100대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1,190억 달러
 - 국경간 M&A는 2011년 530억 달러이며, 그린필드는 전 세계 투자에서 7%를 차지하는 660억 달러⁹⁾

V 다국적기업 현금 보유 현황

□ 금융위기 이후 차입시장 위축

- 금융위기 이전에 다국적기업들은 우호적인 금융시장 환경 하에 차입을 확대하여 부채 규모가 '06~'08년 간 7,099억 달러 순증하였고 이를 배당, 자사주 매입, 투자 등 경영 전반에 활용
- 금융위기 이후 시장 악화로 인해 다국적기업의 부채가 '08년 2,890억 달러 증가에서 '10년에는 상환 금액이 커 1,250억 달러 감소¹⁰⁾

□ 유동성 확보를 위해 현금 확보를 확대

- '10년 현금성 자산(현금 및 단기투자자산)은 1.03조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08년과 비교하면 30% 이상 증가한 것임.

9) 하여 최대 매수기업은 러시아 VimpelCom로 국경간 M&A를 위해 230억불 투자

10) 이태리 Fiat사는 '08~'09년 보유 현금을 4배 가까이 확대

- 총자산 대비 현금 비율은 '05~'08년 7.6%에서 '10년 9.1%로 증가하였으며, 금융위기 이전의 동 비율 적용 시 1,660억불의 초과 현금 보유¹¹⁾

□ 영업활동으로 창출한 현금의 투자 결정에 애로

- 인력 감축, 공장 폐쇄 등 구조조정은 기대했던 비용감소효과가 크지 않았고, 배당 축소는 주가 하락 우려로 인해 실행이 어려워 투자예산을 대폭 축소
- '08~'09년 영업활동 현금흐름 5% 감소하였는데, 배당은 8% 감소에 그쳤으나,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과 M&A 투자는 23% 감소
-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 감소는 경제 회복을 저해

□ '11년은 투자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불확실성 존재

-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11년 5,030억 달러를 기록, 전년대비 12% 증가하였으나, '08년 최고치보다는 10% 감소한 수준
- 경제 여건이 호전될 경우 기업의 보유 현금('11년말 1,050억 달러 초과 현금 보유 추정)은 미래 해외직접투자의 급증을 가져올 수 있음.
- 100대 다국적기업의 투자 형태를 전체 다국적기업에 적용할 경우, 5조 달러의 보유 현금에 연간 5,000억 달러의 투자 가능
- 그러나, 현금 과잉이 반드시 투자에 활용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움
-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며, 기업들의 보유 현금을 유동성 확보, 부채 상환, 배당 지급 등 다른 목적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음.¹²⁾

11) Moodys에 따르면 S&P 500 비금융기업은 '11년말 기준 1.24조 달러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UNCTAD는 전 세계 다국적기업이 4~5조 달러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12) 최근 Apple사는 100억불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활용할 계획임을 밝힘.

VI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동향

- 우리나라의 2011년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은 전년도 233억 달러 대비 13% 감소한 204억달러 기록
 -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금액은 전년대비 16% 증가하여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 중 우리나라의 비중은 1.6%에서 1.2%로 감소, 투자국가 순위는 16위에서 2011년 20위로 하락
 - 금융위기 이전(2005~2007년)과 비교할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63.9% 증가하여 전 세계 12.9%에 비해 견조한 상승세 유지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유출 동향

(억 달러)

	'07	'08	'09	'10	'11
투자액	197	203	172	233	204
증가율	76.5%	2.7%	-15.1%	35.4%	-12.6%
세계비중	0.9%	1.0%	1.5%	1.6%	1.2%
개도국비중	6.2%	6.2%	6.4%	5.8%	5.3%
세계순위	22	21	18	16	20

주: 2002년에서 2006년 사이 평균 유출액 60억 달러

□ 업종별로 1차 산업 30%, 제조업 31%, 서비스업 39% 투자

- 전 세계는 1차 산업 14%, 제조업 46%, 서비스업 40%로 우리나라는 자원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확대로 1차 산업 비중이 높음.
- 전 세계 대비 식음료 제조업, 화학 제조업, 정제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와 운수업 등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기전자와 자동차·운송장비, 금융업 등 투자 비중은 높은 편

□ 지역별로 선진국 41%, 개도국 58%, 체제전환국 1% 투자

- 전 세계 비중은 선진국 49%, 개발도상국 45%, 체제전환국 6%이고 우리의 경우 선진국과 체제전환국 비중이 더 낮고 개도국 비중은 높음.

- 주요 투자국은 미국, 중국, 호주, 홍콩, 캐나다 순으로 상위 투자 5개국의 투자 비중이 53%에 달해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편

□ M&A 투자액은 41억 달러 규모로 해외투자금액의 약 20% 차지

-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 중 M&A 비중 31%에 비해 낮은 편
- 우리나라는 미국 1,302억 달러, 영국 539억 달러, 일본 627억 달러 등 주요 국가 대비 규모 면에서 크게 열세
- M&A 비중: 미국 31%, 영국 50%, 일본 55%, 중국 53%

□ 유입액은 전년도 85억 달러 대비 45% 감소한 47억 달러 기록

- 유입 국가 순위는 72위로 전년과 동일
- 세계 해외직접투자유입액 중 비중은 0.3%, 개도국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중 비중은 0.7%를 차지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유입 동향

(억 달러)

	'07	'08	'09	'10	'11
유입액	26	84	75	85	47
증가율	-46.2%	219.9%	-10.8%	13.5%	-45.2%
세계비중	0.1%	0.5%	0.6%	0.7%	0.3%
개도국비중	0.5%	1.3%	1.4%	1.4%	0.7%
세계순위	92	64	59	72	72

주) 2002년에서 2006년 사이 평균 유입액 57억 달러

1. 개요

□ 해외직접투자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

- 연간 해외투자는 2012년 1.6조 달러, 2013년 1.8조 달러, 2014년에는 1.9조 달러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아프리카로의 투자 유입은 높은 경제 성장, 지속적인 경제 개혁, 높은 상품 가격, 투자자의 인식 개선으로 회복 전망
-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는 완만한 증가세 유지
- 체제전환국은 러시아의 WTO 가입과 민영화 등으로 지속 증가하여 2014년에는 2007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경제 불확실성 존재

- 선진국 경제의 침체 지속, 원유 가격의 상승, 유로존 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위협 등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
- 이는 다국적기업들이 보유 현금이 기록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제한하는 제동장치로 작용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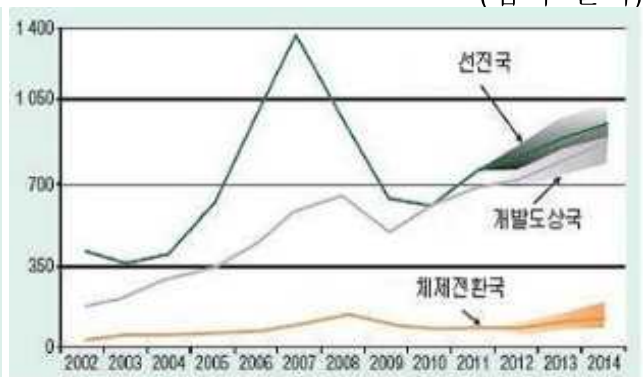
<전체>

(십억 달러)



<그룹별>

(십억 달러)



2. 분야별 전망¹³⁾

가. 진입 방식별

□ 해외 시장 진출 방식에 있어 해외직접투자 중요도 증가 전망

- 인수합병이 가능한 대상 기업의 증가와 다국적기업의 세계화 추구로 특히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에서의 M&A의 중요성 증가
- 라이선싱, 프랜차이징, 구매 계약 등 비지분 방식 투자도 증가 예상
- 복잡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증가로 다국적기업 본국으로부터의 수출은 중요성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진입 방식별 중요도 조사



나. 업종별

□ 전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 확대를 예측하지만 업종별로 상이

- 2012년에 제조업 다국적기업의 60% 정도가 투자 증가를 전망했으나, 1차 산업은 45%, 서비스 산업은 43%만이 증가를 예상
- 2014년의 중기 전망은 산업 전반에 걸쳐 과반수가 투자 증가 예측

13) 174개 다국적기업과 62개 IPA(Investment Promotion Agency)의 유효 답변에 기초

- 그러나, 1차 산업은 그동안 이루어진 활발한 M&A로 증가세가 둔화되어 2013년 40%, 2014년 30%가 투자 감소가 예상되며, 서비스 분야는 40%가 2013~2014년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체제전환국 별로 상이한 견해

- 선진국의 경우 과학 분야의 R&D, 컴퓨터프로그래밍 등 첨단산업분야의 전망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줌.
-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은 식품제조업, 숙박업, 광물·원유·천연가스, 부동산 등 업종의 전망에 높은 점수를 줌.

다. 투자 실행국별

□ 선진국 다국적기업이 투자 여건에 대해 보다 긍정적 입장

- 개발도상국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투자 증가로 인해 중기적으로 투자 합리화(rationalizing)가 예상되며, 반대로 선진국은 투자 축소로 인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
-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은 2012년 세계 투자여건에 대해 이전 21%에 비해, 올해는 14%만이 낙관적 예상
- 2013년과 2014년의 세계 투자여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은 선진국은 각각 9%, 4%를,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은 각각 20%, 14%
- 중국은 해외직접투자의 급속한 성장세와 다양한 산업에 있어서 활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60% 이상이 유망 투자 실행 국가라고 답해 수위를 차지
- 세계 경제에서의 역할 축소에도 불구하고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도 그간의 해외직접투자 원천으로서 여전히 유망 투자국가 상위 차지

라. 투자 대상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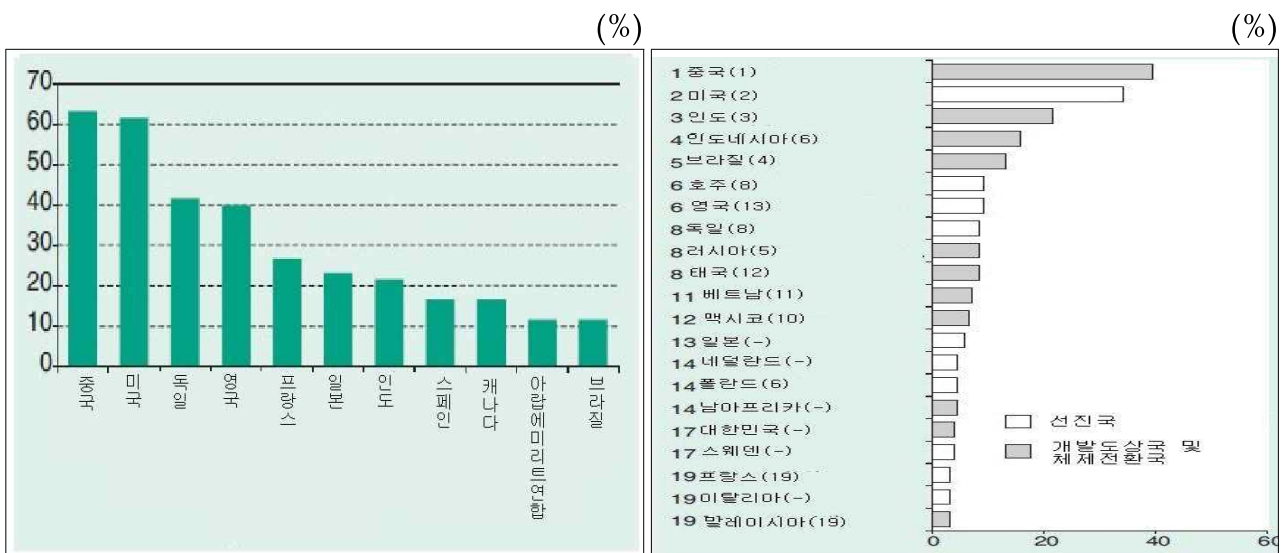
□ 개발도상국, 특히 아시아 지역의 중요도 상승 추세

- 다국적기업의 국제 생산성 증대를 위해 신흥국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중기적으로 이들 국가로의 해외투자 유입액의 증가를 예상.
-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응답자의 64%, 남아시아는 43%가 '매우' 혹은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
- 상위 5개국 중 4개 국가가 개발도상국이며, 인도네시아는 브라질을 제치고 4위, 남아프리카는 14위에 올랐음.
- 기존 유럽과 북미도 여전히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
- 선진국 중에서는 독일은 작년과 순위가 동일했으며, 호주와 영국이 작년에 비해 순위가 상승.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전망

<투자 실행국>

<투자 대상국>



□ 해외직접투자 확대는 선진국형 경제 단계 진입 현상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는 정체

- 2000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은 90억 달러에 달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규모면에서 뚜렷한 증감 추세를 발견하기는 힘들으나, 개도국 중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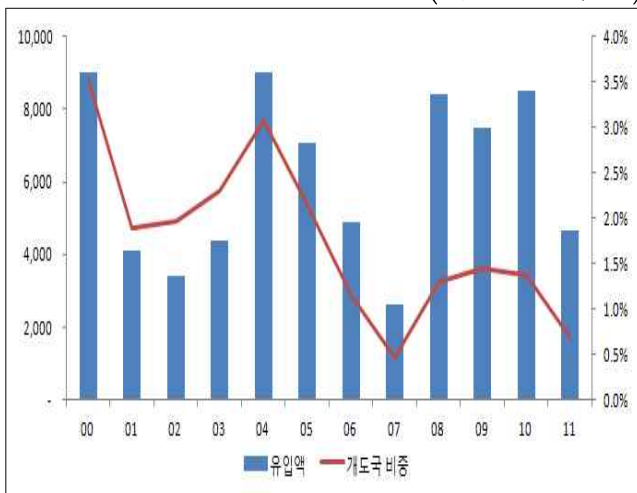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 2000년대 중반 들어 크게 증가한 해외투자가 금융위기 이후로도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며, 개도국 중 차지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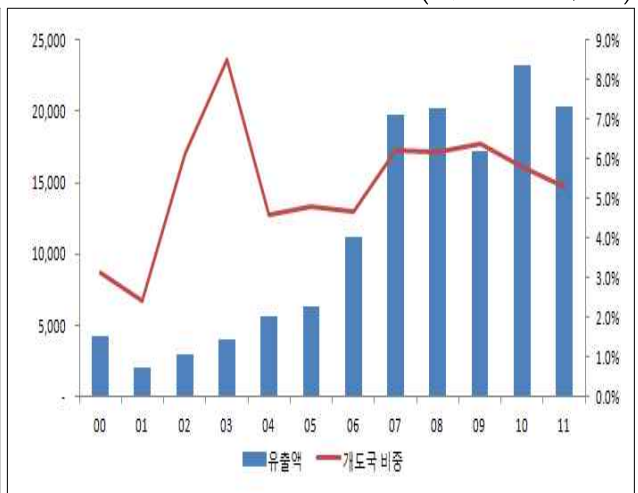
<유입액>

(백만 달러, %)



<유출액>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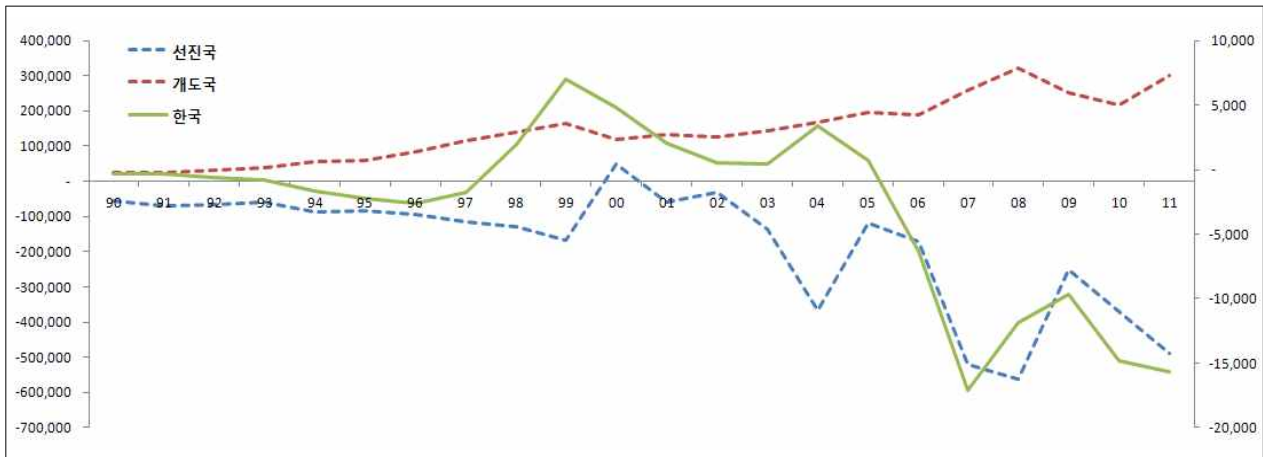
○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수지는 2006년부터 마이너스 전환

- 2004년 해외직접투자수지가 34억 달러에 달하기도 하였으나 2006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하여 2011년에는 157억불에 달함.

- 선진국 경제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선진국은 통계 집계
가 가능한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기록 중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수지 추이

(백만 달러)



□ 해외직접투자는 향후로도 지속 확대 불가피

- 해외직접투자 확대는 성숙 단계에 진입한 선진국 시장에서 경제성장률이 높은 신흥 시장으로, 자국 내수 시장에서 해외 시장으로의 시장 확대라는 기업의 성장 전략에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해외직접투자는 산업 공동화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지 시장 진출, 원천 기술의 확보, 에너지 자원의 확보 등 긍정적 요인이 존재

□ 신흥시장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성장성과 수익성이 양호한 개도국 지역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및 투자환경 정보 제공 등 비금융 서비스 제공 강화 필요
- 세계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서 개도국의 중요성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기업의 현지법인의 경영성과도 개도국이 보다 양호
- UNCTAD가 실시하는 설문과 같이 우리 기업의 투자 예정 국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금융 및 비금융 지원 수요를 예측

* 우리나라 현지법인 당기순이익률('10년) : 선진국 0.7%, 개도국 2.9%

□ 해외 M&A 동향 파악 및 전략적 해외투자 추진

-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저평가 기업 매물이 많을 수 있으므로 M&A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과감한 리스크 테이킹 전략 구사
- M&A는 기술 획득, 즉각적인 생산 능력 제고, 시장 점유율 확대, 규모의 경제 달성에 의한 원가 절감, 그린필드 투자에 비해 낮은 위험 등 긍정적 요인 존재
- 다만, M&A를 위한 지나친 외부 차입이 승자의 저주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M&A 이후 효율적인 조직 통합 관리(PMI; post-merger integration)를 통해 순기능을 극대화

□ 지역 클러스터 중심의 동반 성장 체제 구축

- 현지법인 신용 대출, 해외 동반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다양한 금융 제공 필요
- 현지법인의 규모가 커지고 독립경영 추세가 확대되고 있는 바, 우량한 현지법인 앞 신용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우리기업들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진출하여 지역별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형태의 해외직접투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동반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
- 더불어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 국가를 중심으로 정책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확대하여 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

<참고자료 1>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

(십억 달러)

지역	2009		2010		2011	
	투자액	순위	투자액	순위	투자액	순위
미국	267	1	304	1	397	1
일본	75	4	56	8	114	2
영국	44	7	40	12	107	3
프랑스	107	2	77	4	90	4
홍콩	64	5	95	3	82	5
벨기에	9	23	56	9	71	6
스위스	28	13	65	6	70	7
러시아	44	8	53	11	67	8
중국	57	6	69	5	65	9
영국령 버진군도	35	10	59	7	63	10
독일	75	3	109	2	54	11
캐나다	42	9	39	13	50	12
이탈리아	21	16	33	15	47	13
스페인	13	21	38	14	37	14
네덜란드	28	12	55	10	32	15
오스트리아	10	22	8	33	30	16
스웨덴	26	15	18	19	27	17
싱가포르	18	17	21	18	25	18
덴마크	6	30	3	39	23	19
대한민국	17	18	23	16	20	20
노르웨이	34	11	23	17	20	21
오스트레일리아	17	19	13	26	20	22
말레이시아	8	25	13	24	15	23
인도	16	20	13	25	15	24
대만	6	31	12	28	13	25
포르투갈	1	54	-7	186	13	26
칠레	7	27	9	30	12	27
룩셈부르크	8	26	15	21	12	28
태국	4	34	5	36	11	29
멕시코	7	28	14	23	9	30

<참고자료 2>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십억 달러)

지역	2009		2010		2011	
	유입액	순위	유입액	순위	유입액	순위
미국	144	1	198	1	227	1
중국	95	2	115	2	124	2
벨기에	62	4	81	3	89	3
홍콩	52	5	71	4	83	4
브라질	26	14	49	8	67	5
싱가포르	24	15	49	7	64	6
영국	71	3	51	5	54	7
영국령 버진군도	47	6	49	6	54	8
러시아	36	7	43	10	53	9
오스트레일리아	27	12	36	12	41	10
프랑스	24	16	31	13	41	11
캐나다	21	19	23	17	41	12
독일	24	17	47	9	40	13
인도	36	9	24	16	32	14
스페인	10	28	41	11	29	15
이탈리아	20	21	9	27	29	16
멕시코	16	22	21	18	20	17
인도네시아	5	39	14	23	19	18
룩셈부르크	22	18	9	26	18	19
칠레	13	26	15	22	17	20
네덜란드	36	8	-9	221	17	21
사우디아라비아	32	10	28	14	16	22
터키	8	32	9	29	16	23
폴란드	13	25	9	30	15	24
덴마크	4	48	-7	220	15	25
오스트리아	9	30	4	45	14	26
콜롬비아	7	36	7	35	13	27
아일랜드	26	13	26	15	13	28
카자흐스탄	13	24	11	24	13	29
스웨덴	10	29	-1	218	12	30
한국	7	59	8	72	4	72